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21.10 [11~15]

(가)

태평시절 버린 몸이 물외(物外)에 누어더니
 갑 엽손 풍월과 임지 엽손 강산을
 조물이 허락하야 날을 맞겨 버리시니
 ㉠ 니라 스양향며 닛토리 뉘 이시리
 상주 동쪽 두둑과 낙동강 서쪽 물가에
 연하를 헤치고 동천*을 츠즈 드러
 죽장망혜(竹杖芒鞋)로 처처(處處)의 도라보니
 맑은 연못 곱흔 곳의 노프니는 절벽이오
 ㉡ 옥 고틈 여흠은 비단 편 돛 흘러 있다
 ㉢ 대(臺)도 돛그러니 정주도 지으려니
 연못도 푸오며 시냇물도 헤오려니
 님 힘 밋는 디로 초옥삼간(草屋三間) 지어 님니
 ㉣ 갓춘 것 부족흔디 경기는 그지업다

(중략)

천 이랑의 맑은 물은 거울을 듯가시며
 십 리 어촌은 연수*로 돌렸으니
 임호정과 어풍대에서 바라본 풍경을
 말로 다 이르오며 아니 보아 어이 알소
 그눈크니와 사시(四時)에 비는 경이
 피여 디는 돛 푸르러 이우는 돛
 온갖 바위 비단된 돛 온 꼴짜기 구슬된 돛
 화공 솜씨를 측량기 어려워라
 보아 싫증나며 변화를 가늠할가
 ㉤ 늪고 병들고 게으른 이 성품이
 세상 물정도 몰르고 인사(人事)의 우활하여
 공명부귀도 구하기에 재주 없어
 빈천 기한(飢寒)을 일상의 겪고 이서
 낙천지명*을 예 즐판 드러더니
 산수(山水)에 벽*이 이서 우연히 드러오니
 득실도 모르거든 영욕(榮辱)을 어이 알며
 시비(是非)를 못 듯거니 출척*을 어이 알소
 좁은 방이 쓸쓸하고 용슬을 흐뭇 마덧*
 작은 방이 적막하고 세상 근심 이져시니
 책 속의 성현 말씀 오랜 세월에 사우*시며
 천지신명은 마음의 비쳐시며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마자 하니
 거친 밤 마실 물도 있든지 못 있든지
 고인 진락(古人眞樂)이 고요함 속의 김혀서라

[A]

- 조우인, 「매호별곡」 -

- * 동천: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
- * 연수: 연기나 안개, 구름 따위에 싸여 뿌얕고 멀리 보이는 나무.
- * 낙천지명: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자기의 처지에 만족함.
- * 벽: 무엇을 치우치게 즐기는 성벽(性癖).
- * 출척: 못된 사람을 내쫓고 착한 사람을 울리어 씌.
- * 용슬을 흐뭇 마덧: 방이 좁아서 무릎을 들일 듯 말 듯.
- * 사우: 스승으로 삼을 만한 벗.

(나)

어떤 화문 잠지에서 「근일각다점풍경(近日喫茶店風景)*」이라고 제한 다음과 같은 풍자만화를 본 일이 있다.
 스탠드가 놓이고 액(額)이 걸리고 열대 식물의 분(盆)이 있고 한 것이 배경이요, 그 앞으로 세트가 한 벌.

탁(卓)에는 빈 찻잔과 설탕 단지와 재떨이.

㉠ 그리고서 결상에는, 탁 밑에 구두를 가지런히 벗어 놓고, 결상 앉을게 위에 가 무릎을 단정히 꿇고 두 손을 마주 잡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눈을 내려 감고 한 인물이 조용히 앉아 있다.

사족 같으나 원화에 있는 설명을 마저 소개하면

“저 사람 꽤 버티지?”

“참선하나 봐!”

이러한 만화를 구태여 인용하지 않더라도 진작부터 이 두레에도 침구거사들이 다방인종을 신랄하게 풍자한 썩 재미있는 어휘가 많이 있다.

벽화(壁畵)!

반만 마신 찻잔에서는 김도 오르지 않고 재떨이에는 콩초만 그득하니 벌써 두 시간이 되었는지 세 시간이 되었는지, ㉡ 그 두 시간 혹은 세 시간을 벽 밑의 세트에 가서 그린 듯 붙박이로 앉아 있는 포즈가 왜 아니 그림 같을까! 벽화란 참으로 천금 값이 나가는 한마디다.

또 특히 온종일 다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물만 먹는데서 금붕어라고도 한다. 역시 재치꾼이 아니고는 지어내기 어려운 명담(名談)이다.

이렇듯 다방인종이 일부 사람에게 (가령 독한 가시는 없으나) 조롱을 받는 것이 사실은 사실이나 그러한 조롱을 [B] 때우고도 넉넉 남음이 있을 만큼 다방은 전당국과 아울러 현대인에게 다시없이 고마운 물건이 아닐 수 없다.

머리와 몸이 피로하기 쉬운 우리 도시이다.

오피스로부터 풀려나오는 길이라도 좋다. 불일로 출장 돌아다니던 길이라도 좋다. 혹은 아스팔트를 거닐러 나왔던 길이거나 영화를 보고 나오던 길이라도 좋다.

아무튼 피로를 느낄 때, 길옆 거기 어디 다방을 찾아 들어 서면 우선 폭신한 쿠션이 있어서 앉을 자리가 편안하다.

기호에 따라 향긋한 홍차든지 짹짹한 커피든지 또는 갈증에 좋은 청량음료든지, 이편이 청하는 대로 대령을 한다.

명곡이 구비하다. ㉢ 웬만한 것이면 이편이 귀가 서들러 못 알아들을 지경이다.

하니, 자리가 편안하겠다. 마시는 것이 흥분제였다. 음악이 아름답겠다. 차를 마신 다음에는 담배라도 붙여 물고 유투비 20, 30분이고 앉아 있노라면 피로는 자연 견뎌진다.

만일 이만한 설비를 제가끔 제 가정에다가 해 놓고 지내자고 해 보아라. ㉣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군색한 조선의 중류 사람으로 평평도 못 할* 것이니.

도시에 살자니, 편둥편둥 놓고먹는 사람이 아니고는 제가끼 제 깔냥에 자작소름한 용무가 많고, 자주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것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제집에서 기다려서 만나 보고 하자면 여간만 불편한 게 아니다.

㉤ 한데 다방이면 으레 중심 지대에 있겠다. 항용 다른 불일과 겸서서 나올 수도 있고 지날 길에 잠시 들를 수도 있다. 더구나 전화가 있으니 편리하다. 웬만한 회담이면, 그러므로 안성맞춤인 것이 다방이다.

가령 의식적으로 피로를 쉰다거나 더욱이 다방을 사랑방으로 이용하는 그런 공리적인 타산은 말고라도, 혹시 겨울의 모진 추위에 몸을 웅송크리고 아스팔트 위로 종종걸음을 치다가 문득 눈에 띄는 대로 노방의 다방 문을 밀치고 들어간다고 하자. 활짝 단 가스난로 가까이 푸근한 쿠션에 걸여앉아, 잘 끓은 커피 한 잔을 따끈하게 마시면서 아무 것이고 그때 마침 건 명곡 한 곡조를 듣는 안일과 그 맛이란 역시 도회인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낙인 것이요, 그것을 모르고 도시에 살다니, 그는 분명



촌맹*이며 가련한 전 세기 사람일 것이다.

- 채만식, 「다방찬」 -

* 근일끼다점풍경 : 근래의 다방 풍경.

* 땅땸도 못 할 : 감히 생각조차 못 할.

* 촌맹 : 시골에 사는 사람.

1.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설의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 :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⑤ ㉤ :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 자신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2.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 엽손 풍월과 임직 엽손 강산'은 화자가 떠나온 곳으로 '동천'과 대조적 성격을 지닌다.
- ② '노프니는 절벽이오'는 화자가 '맑은 연못 깊은 곳'에서 벗어나 도달하고자 하는 내면적 경지를 드러낸다.
- ③ '산수에 벽이 이서'는 화자가 '빈천 기한'을 일생토록 겪으면서 극복하고자 한 문제를 가리킨다.
- ④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마자'는 '책 속의 성현 말씀', '천지 신명'과 관련하여 화자가 지향하게 된 태도를 나타낸다.
- ⑤ '거친 밥 마실 물'은 '작은 방'에서 '쓸쓸하게 지내는 화자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알려 준다.

3. (나)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람이 다방의 풍경과 조화를 이룬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다방에서 종일토록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대한 글쓴이의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 : 다방에서 틀어 주는 음악의 수준이 높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 조선의 중류 사람이라면 다방의 모든 설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 ⑤ ㉤ : 다방이 중심지에만 위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글쓴이의 아쉬움을 강조하고 있다.

4.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자연의 순리에 대한, [B]는 현대인의 모순된 생활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생활에 대한, [B]는 도시에서의 바쁜 일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는 자연과 인간의 부조화에 대한, [B]는 도시 속 공간과 인간의 부조화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A]는 자연이 보여 주는 다채로운 모습에 대한, [B]는 다방이 지니고 있는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자연에서 느낀 세월의 흐름에 대한, [B]는 다방을 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5.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주체는 공간과 관계를 맺으며 공간 속에서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이때 주체가 공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3인칭의 공간'과 '2인칭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3인칭의 공간은 주체인 '나'에게 객관적인 대상으로 인식되는 공간이고, 2인칭의 공간은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있는 공간이다. 3인칭의 공간은 '나'와의 관련성이 높아지면 2인칭의 공간으로 변한다. 2인칭의 공간에서의 체험은 주체에게 3인칭의 공간에서의 체험보다 의미 있는 것이 된다.

- ① (가)에서 '너 힘 밋는 뒤로 초옥삼간 지어' 냈다고 한 것은, 주체가 자연을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임호정과 어풍대에서 바라본 풍경'에 대해 '아니 보아 어이 알쇠'라고 한 것은, 체험을 통해 자연이 2인칭의 공간이 되었을 때 주체가 그 풍경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피로는 자연 길혀진다'라고 한 것은, 주체가 공간에 부여한 의미를 통해 주체에게 '다방'이 2인칭 공간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가)에서 '시비를 못 듯거니'라고 한 것과 (나)에서 '그것을 모르고 도시에 살다니'라고 한 것은, 특정 공간에서 품게 된 내면의 욕구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체가 공간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가)에서 '고인 진락'을 제시한 것과 (나)에서 '안일과 그 맛'을 제시한 것은, 공간이 주체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주체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읽기 전 활동

<보기>가 읽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보기>입니다. 두 작품 모두 제목만 보아서는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 힘들니다.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 봅시다.

(가)

태평시절 브린 몸이 물외(物外)에 누어더니
갑 업슨 풍월과 임지 업슨 강산을
조물이 허락하야 날을 맞겨 버리시니
니라 스양하며 닷토리 누 이시리
상주 동쪽 두둑과 낙동강 서쪽 물가에
연하를 헤치고 동천*을 츠즈 드러
죽장망혜(竹杖芒鞋)로 처처(處處)의 도라보니
맑은 연못 김흔 곳의 노프니는 절벽이오
옥 곱튼 여흠은 비단 편 듯 흘러 있다
대(臺)도 돛그러니 정조도 지으려니
연못도 푸오며 시냇물도 헤오려니
니 힘 밋는 디로 초옥삼간(草屋三間) 지어 니니
갖춘 것 부족헌디 경기는 그지업다

(중략)

* 동천 :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어촌의 풍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대'와 '정자'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임호정'과 '어풍대'에서 어촌의 풍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화자는 이러한 경치를 마치 '화공'의 솜씨로 바위가 비단이 된 듯, 온 골짜기가 구슬이 된 듯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늙고 병들고 게으른 이 성품이
세상 물정도 물르고 인사(人事)의 우활하여
공명부귀도 구하기에 재주 없어
빈천 기한(飢寒)을 일상의 겪고 이셔
낙천지명*을 예 좁판 드러더니
산수(山水)에 벽*이 이셔 우연히 드러오니
득실도 모르거든 영욕(榮辱)을 어이 알며
시비(是非)를 못 듯거니 출척*을 어이 알꼬
* 낙천지명 :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자기의 처지에 만족함.
* 벽 : 무엇을 치우치게 즐기는 성벽(性癖).
* 출척 : 못된 사람을 내쫓고 착한 사람을 울리어 씬.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속세를 떠나와 자연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록 갖춘 것은 적지만 자연은 즐기기에 더없음을 이야기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가볍게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하고 넘어간다면 충분하겠습니다.

천 이랑의 맑은 물은 거울을 듯가시며
십 리 어촌은 연수*로 들렀으니
임호정과 어풍대에서 바라본 풍경을
말로 다 이르오며 아니 보아 어이 알꼬
그는쿠니와 사시(四時)에 뵈는 경이
피여 디는 듯 푸르려 이우는 듯
온갖 바위 비단된 듯 온 골짜기 구슬된 듯
화공 솜씨를 측량키 어려워라
보아 싫증나며 변화를 가늠홀가
* 연수 : 연기나 안개, 구름 따위에 싸여 뽕얇고 멀리 보이는 나무.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자신의 늙고 병들고 게으른 성품으로 인해 세상 물정과 인사에 어두워 공명부귀를 구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화자는 가난을 일상으로 겪고 있는 삶을 살지만, 자신의 처지에 순응하여 자연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좁은 방이 쓸쓸하고 용슬을 흐뭇 마덧*
작은 방이 적막하고 세상 근심 이져시니
책 속의 성현 말씀 오랜 세월에 사우*시며
천지신명은 마음의 비취시며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마자 흐니
거친 밤 마실 물도 잇든지 못 잇든지
고인 진락(古人眞樂)이 고요함 속의 깃혀서라
- 조우인, 「매호별곡」 -
* 용슬을 흐뭇 마덧 : 방이 좁아서 무릎을 들일 듯 말 듯.
* 사우 : 스승으로 삼을 만한 벗.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쓸쓸하고 좁은 방에서 세상 근심을 잊은 화자는 책 속의 성현의 말씀을 벗으로 여겨 타고난 성품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화자는 이를 '옛 사람의 진정한 즐거움'으로 표현하며 고요한 생활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고 넘어간다면 좋겠습니다.

#작품 총평

화자가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가난하고 쓸쓸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자연에서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제외한다면 강호한정시가의 전형적인 형태임을 생각하면서 읽었다면 좋겠습니다.

(나)

어떤 화문 잠지에서 「근일찍다점풍경(近日喫茶店風景)*」이라고 제한 다음과 같은 풍자만화를 본 일이 있다.

스탠드가 놓이고 액(額)이 걸리고 열대 식물의 분(盆)이 있고 한 것이 배경이요, 그 앞으로 세트가 한 벌.

탁(卓)에는 빈 찻잔과 설탕 단지와 재떨이.

그리고서 걸상에는, 탁 밑에 구두를 가지런히 벗어 놓고, 걸상 앞을 향해 위가 무릎을 단정히 꿇고 두 손을 마주 잡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눈을 내려 감고 한 인물이 조용히 앉아 있다.

사족 같으나 원화에 있는 설명을 마저 소개하면

“저 사람 꽤 버티지?”

“참선하나 봐!”

이러한 만화를 구태여 인용하지 않더라도 진작부터 이 두레에도 첩구거사들이 다방인증을 신랄하게 풍자한 썩 재미있는 어휘가 많이 있다.

벽화(壁畵)!

반만 마신 찻잔에서는 김도 오르지 않고 재떨이에는 콩초만 그득하니 벌써 두 시간이 되었는지 세 시간이 되었는지, 그 두 시간 혹은 세 시간을 벽 밑의 세트에 가서 그린 듯 불박이로 앉아 있는 포즈가 왜 아니 그림 같을꼬! 벽화란 참으로 천금 값이 나가는 한마디다.

또 특히 온종일 다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물만 먹는대서 금붕어라고도 한다. 역시 재치꾼이 아니고는 지어내기 어려운 명담(名談)이다.

* 근일찍다점풍경: 근래의 다방 풍경.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글쓴이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글쓴이가 '근일찍다점풍경'이라는 풍자 만화를 본 경험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새로이 유행하던 '다방'에 대한 이야기로, 커피를 사서 오랜 시간 머무르는 다방의 모습을 풍자한 만화입니다. 이러한 만화를 보고 글쓴이는 틀린말이 없다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듯 다방인종이 일부 사람에게 (가령 독한 가시는 없으나)마) 조롱을 받는 것이 사실은 사실이나 그러한 조롱을 때우고도 넉넉 남음이 있을 만큼 다방은 전당국과 아울러 현대인에게 다시없이 고마운 물건이 아닐 수 없다.

머리와 몸이 피로하기 쉬운 우리 도시이다.

오피스로부터 풀려나오는 길이라도 좋다. 불일로 출장 돌아다니던 길이라도 좋다. 혹은 아스팔트를 거닐러 나왔던 길이거나 영화를 보고 나오던 길이라도 좋다.

아무튼지 피로를 느낄 때, 길옆 거기 어디 다방을 찾아 들어 서면 우선 폭신한 쿠션이 있어서 앉을 자리가 편안하다.

기호에 따라 향긋한 홍차든지 씹살한 커피든지 또는 갈증에 좋은 청량음료든지, 이편이 청하는 대로 대령을 한다.

명곡이 구비하다. 웬만한 것이면 이편이 귀가 서툴러 못 알아들을 지경이다.

하니, 자리가 편안하겠다. 마시는 것이 흥분제였다. 음악이 아름답겠다. 차를 마신 다음에는 담배라도 붙여 물고 유투비 20, 30분이고 앉아 있노라면 피로는 자연 견혀진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글쓴이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글쓴이는 다방이 조롱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다방이 분명 좋은 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피로할 때 다방에서 폭신한 자리, 다양한 음료, 좋은 음악을 통해 쉬는 것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한 글쓴이는 앞에서의 조롱에도 다방의 장점을 예찬하는 입장임을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만일 이만한 설비를 제가끔 제 가정에다가 해 놓고 지내자고 해 보아라. 가뜰이나 살림살이가 군색한 조선의 중류 사람으로 땅뽕도 못 할* 것이니.

도시에 살자니, 편둥편둥 놓고먹는 사람이 아니고는 제각기 제 감념에 자작소름한 용무가 많고, 자주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것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제집에서 기다려서 만나 보고 하자면 여간만 불편한 게 아니다.

한데 다방이면 으레 중심 지대에 있겠다. 향용 다른 불일과 겸서서 나올 수도 있고 지날 길에 잠시 들를 수도 있다. 더구나 전화가 있으니 편리하다. 웬만한 회담이면, 그러므로 안성맞춤인 것이 다방이다.

가령 의식적으로 피로를 쉰다거나 더욱이 다방을 사랑방으로 이용하는 그런 공리적인 타산은 말고라도, 후시 겨울의 모진 추위에 몸을 웅송크리고 아스팔트 위로 종종걸음을 치다가 문



득 눈에 띄는 대로 노방의 다방 문을 밀치고 들어간다고 하자. 활활 단 가스난로 가까이 푸근한 쿠션에 걸터앉아, 잘 끓은 커피 한 잔을 따끈하게 마시면서 아무 것이고 그때 마침 건 명곡 한 곡조를 듣는 안일과 그 맛이란 역시 도회인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낙인 것이요, 그것을 모르고 도시에 살다니, 그는 분명 촌맹*이며 가련한 전 세기 사람일 것이다.

- 채만식, 「다방찬」 -

*망뎡도 못 할 : 감히 생각조차 못 할.

*촌맹 : 시골에 사는 사람.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글쓴이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글쓴이는 앞의 이유로 다방의 장점을 이야기한 후 이번에는 다방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방의 시설을 집에 구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도시에 살면서 사람을 볼 일이 많은 도시인들이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이 두 번째, 겨울의 추위에 몸을 피할 곳이 되어준다는 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글쓴이가 다방을 예찬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고,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다방이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작품 총평

제목에 드러난대로 글쓴이의 다방에 대한 예찬으로 글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방을 풍자하는 만화를 제시하고, 이후에는 이러한 풍자에도 불구하고 글쓴이가 생각하는 다방의 장점과 필요성을 나열한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 ㉠ 나라 스양하며 닷토리 뉘 이시리
- ㉡ 옥 곱든 여울은 비단 편 듯 흘러 있다
- ㉢ 대(臺)도 돛그러니 정조도 지으려니
- ㉣ 갓춘 것 부족헌디 경기는 그지업다
- ㉤ 늙고 병들고 게으른 이 성품이

① ㉠: 설의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설의적 표현인 '이시리'를 통하여 서로 다들 이가 없다는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② ㉡: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 옥 같은 여울이 비단을 편 듯 흘러 있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여울의 아름다움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③ ㉢: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 '대도 지으려니, 정자도 지으려니'라는 대구를 통해 화자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이를 더욱 즐기 위한 건축물을 짓고자 함을 드러냅니다.

④ ㉣: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영탄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갓춘 것이 부족헌데 경치가 그지업다'는 평서문으로서, 감탄의 정서가 드러나는 영탄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⑤ ㉤: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 자신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 늙고, 병들고, 게으른 화자 자신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자 자신의 성품을 나열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갓 읍순 풍월과 임지 읍순 강산'은 화자가 떠나온 곳으로 '동천'과 대조적 성격을 지닌다.

→ 갓 읍는 풍월과 임지 읍는 강산은 화자가 현재 지내고 있는 곳으로, '동천'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② '노프니는 절벽이오'는 화자가 '맑은 연못 깊은 곳'에서 벗어나 도달하고자 하는 내면적 경지를 드러낸다.

→ '높으니는 절벽이오'에서 화자가 '맑은 연못 깊은 곳'의 절벽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맑은 연못 깊은 곳'이 부정적 공간이 아님을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③ '산수에 벽이 이셔'는 화자가 '빈천 기한'을 일생토록 겪으면서 극복하고자 한 문제를 가리킨다.

→ '산수에 벽이 있어'는 '빈천 기한'을 일생토록 겪으면서 화자가 산과 물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즐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벽'이 안좋은 의미가 아닌 특정 대상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④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마자'는 '책 속의 성현 말씀', '천지신명'과 관련하여 화자가 지향하게 된 태도를 나타낸다.

→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마자'는 '책 속의 성현 말씀', '천지신명'과 관련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자는 자연을 즐기고 속세를 꺼려하는 사람으로, 이러한 자신의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화자의 지향을 드러냅니다.



⑤ '거친 밥 마실 물'은 '작은 방'에서 '쓸쓸하'게 지내는 화자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알려 준다.

→ '거친 밥 마실 물'은 '작은 방'에서 '쓸쓸하'게 지내는 화자가 먹고 마시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화자의 소박한 삶을 드러냅니다.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 화자의 현재 모습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3. (나)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③

㉠ 그리고서 걸상에는, 탁 밑에 구두를 가지런히 벗어 놓고, 걸상 앞을 향해 위에 가 무릎을 단정히 꿇고 두 손을 마주 잡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 그 두 시간 혹은 세 시간을 벽 밑의 세트에 가서 그런 듯 불박이로 앉아 있는 포즈가 왜 아니 그림 같을까!
㉢ 웬만한 것이면 이편이 귀가 서툴러 못 알아들을 지경이다
㉣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군색한 조선의 중류 사람으로 땅뽕도 못 할 것이니
㉤ 한데 다방이면 으레 중심 지대에 있겠다
*땅뽕도 못 할: 감히 생각조차 못 할.

① ㉠: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람이 다방의 풍경과 조화를 이룬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우선, ㉠은 다방의 모습을 풍자한 만화의 내용으로,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다방의 풍경과 조화를 이룬다는 글쓴이의 생각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해당 선지에서 헛갈렸다면 지문에 등장하지 않은 내용을 너무 과하게 비약한 것이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② ㉢: 다방에서 종일토록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 대한 글쓴이의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 다방에서 종일토록 시간을 보내는 것인지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글쓴이의 부러움 또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다방인중'을 풍자하는 말인 '벽화'라는 단어를 보고 글쓴이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③ ㉣: 다방에서 틀어 주는 음악의 수준이 높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다방에서 틀어주는 음악이 '명곡'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서툴러 음악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음악이 아름답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뒤의 부분을 통해서도 근거를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④ ㉤: 조선의 중류 사람이라면 다방의 모든 설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 조선의 중류 사람의 형편으로는 다방의 모든 설비를 절대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⑤ ㉡: 다방이 중심지에만 위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글쓴이의 아쉬움을 강조하고 있다.

→ 다방이 중심지에 위치한 현실은 글쓴이가 다방의 유용함을 주장하기 위해 드러낸 사실입니다. 이는 다방의 위치가 접근성이 좋은 곳이므로 다른 볼일을 보는 김에 들르거나 지나가다 잠시 들르기에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4.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① [A]는 자연의 순리에 대한, [B]는 현대인의 모순된 생활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A]는 자연의 순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연의 순리란 대부분 영원한 자연의 모습을 이야기하거나, 사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에서는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에 대해서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B]는 현대인의 모순된 생활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방을 다니는 사람이 조롱을 받음에도 다방이 이를 넘어설 정도의 유용함을 지녔다는 화자의 주장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② [A]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생활에 대한, [B]는 도시에서의 바쁜 일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A]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생활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B]는 도시에서의 바쁜 일상의 그리움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다방이 현대인의 삶에 유용하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③ [A]는 자연과 인간의 부조화에 대한, [B]는 도시 속 공간과 인간의 부조화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A]는 자연과 인간의 부조화가 아닌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 묘사를, [B]는 도시속 공간인 '다방'이 현대인에게 유용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태도는 [A], [B] 둘 모두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④ [A]는 자연이 보여 주는 다채로운 모습에 대한, [B]는 다방이 지니고 있는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A]는 자연이 보여 주는 다채로운 모습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이는 화자의 '화공 솜씨를 측량키 어려워라'라며 자연을 마치 장인이 그려낸 그림과도 같다고 표현하는 부분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B]는 다방이 '현대인에게 다시없이 고마운 물건'이라고 주장하며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⑤ [A]는 자연에서 느낀 세월의 흐름에 대한, [B]는 다방을 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A]는 자연에서 느낀 아름다움에 대해 감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B]는 다방을 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에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조롱에도 다방은 유용하다는 점을 이야기할 뿐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5.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④

<보 기>

주체는 공간과 관계를 맺으며 공간 속에서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이때 주체가 공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3인칭의 공간'과 '2인칭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3인칭의 공간은 주체인 '나'에게 객관적인 대상으로 인식되는 공간이고, 2인칭의 공간은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있는 공간이다. 3인칭의 공간은 '나'와의 관련성이 높아지면 2인칭의 공간으로 변한다. 2인칭의 공간에서의 체험은 주체에게 3인칭의 공간에서의 체험보다 의미 있는 것이 된다.

① (가)에서 '너 힘 맞는 디로 초옥삼간 지어' 냐다고 한 것은, 주체가 자연을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내 힘 닷는 대로 초옥삼간 지어' 냐다고 한 것은, 화자가 속세를 떠나 자연을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삼았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

② (가)에서 '임호정과 어풍대에서 바라본 풍경'에 대해 '아니 보아 어찌 알꼬'라고 한 것은, 체험을 통해 자연이 2인칭의 공간이 되었을 때 주체가 그 풍경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음을 말할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임호정과 어풍대에서 바라본 풍경'에 대해 '아니 보아 어찌 알꼬'라고 한 것은, 화자가 자연을 직접 보아야만 가치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보기>를 참고하면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기에 3인칭의 공간에서의 체험보다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③ (나)에서 '피로는 자연 견혀진다'라고 한 것은, 주체가 공간에 부여한 의미를 통해 주체에게 '다방'이 2인칭 공간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피로는 자연 견혀진다'라고 한 것은 주체가 공간에 '피로가 견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주체에게 '다방'이 2인칭 공간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④ (가)에서 '시비를 못 듯거니'라고 한 것과 (나)에서 '그것을 모르코 도시에 살다니'라고 한 것은, 특정 공간에서 품게 된 내면의 욕구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체가 공간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시비를 못 듯거니'라고 한 것은 (가)의 화자가 자연에서 살면서 얻게 되는 만족스러운 상황으로, 속세의 다툼을 듣지 않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한, (나)에서 '그것을 모르코 도시에 살다니'라고 한 것은 '다방'을 가지 않고 도시에 산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반영되었을 뿐,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⑤ (가)에서 '고인 진락'을 제시한 것과 (나)에서 '안일과 그 맛'을 제시한 것은, 공간이 주체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주체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가)에서 '고인 진락'을 제시한 것은 화자가 자연과의 관계에서 옛사람의 진정한 즐거움을 깨달았다는 의미로써, 주체와 공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주체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안일과 그 맛'은 다방에서 현대인이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글쓴이는 다방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주체인 글쓴이의 삶에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